

보도설명자료 (‘21. 9. 23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원활한 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, 정산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

(9.23일자 한겨레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풍력발전의 보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출자사업의 적정성 검토 절차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, 정산제도 개선방안도 검토중에 있음

◇ 9월 23일 한겨레 <탄소중립 급한데... 돌지 않는 풍력 발전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- ☐ 발전공기업의 풍력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절차가 까다로워 풍력발전 신규 설비보급이 정체 상태
 - RPS 정산 기준가격도 재생에너지원을 가중평균에 산정하다 보니, 저렴한 태양광 계약단가에 좌우되어 풍력발전 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기사에서 제기한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의 검토절차 개편을 진행중에 있으며, 풍력사업의 정산방식 개선방안도 검토중
- ① 발전공기업의 풍력발전 출자사업 추진을 위해 비용 적정성 검토 절차와 기준을 마련중에 있음

- ② 발전공기업 등 RPS 공급의무자가 풍력프로젝트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며, 풍력사업의 정산제도에 대해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임

※ 문의: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 (044-203-5360)/송상현 사무관 (5364)
재생에너지보급과 문양택 과장 (044-203-5380)/권용균 사무관 (5383)
전력시장과 강경택 과장 (044-203-3910)/이재익 사무관 (3915)